

17세기 시조창작의 각이한 경향

김 명

간결하고 함축된 시구에 깊은 뜻을 담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는 시조는 17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기동성과 즉흥성으로 하여 왕성하게 창작되었으며 유명무명의 시인들에 의하여 각이한 경향을 띠고 발전하였다. 이 시기 일정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치고 시조를 한두수정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효종, 숙종 등 왕들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시조작품을 수많이 남긴것을 통하여 뚜렷이 알수 있다.

17세기에 시조창작은 당시의 력사적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주제의 사회적성격을 강화한것과 함께 서민계층에 의하여 도학적인 창작경향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로운 생활과 감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노래하는데로 지향되었다. 한편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량반문인들에 의하여 강호한정을 반영한 은일시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7세기 시조의 창작경향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급격히 높아가고있던 인민들의 민족적자각을 반영한 애국적주제의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조형식이 널리 퍼지는 가운데 선진적이며 애국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시조작품도 창작되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5페이지)

17세기에 창작된 애국적주제의 시조작품들은 주로 병자전쟁과 그이후의 력사적현실로부터 환기된 우국의 심정과 짓밟힌 민족적존엄에 대한 통탄, 어려운 속에서도 애국의 굳은 마음을 굽히지 않으려는 강렬한 지향 등을 기본정서로 하고있다. 따라서 이 시기 애국적주제의 시조들은 많은 경우에 비장한 양상을 띠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적국과의 화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존엄을 지켜 끝까지 싸울것을 주장한 《척화파》의 인물들인 김상헌, 홍익한, 김류가 남긴 시조들에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수난당한 조국에 대한 절통한 비애와 애국심이 형상적으로 일반화되어있다.

김상헌(1570-1652, 자 : 숙도, 호 : 청음)은 병자전쟁시기 강화도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목사한 김상용의 동생이다. 당시 조정에서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그 《죄》로 청나라에 끌려가 모진 옥고를 치르고 돌아온것으로 보아 그는 말년까지도 나라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살아온 인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가 1637년 고국을 떠나가면서 지은 시조가 바로 널리 알려진 《가노라 삼각산아...》이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75페이지)

시조에서는 사랑하는 고국산천을 두고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절통한

심정과 자기 한몸의 운명보다 조국의 운명을 더 걱정하는 감정정서가 첫구절에서부터 강렬하게 안겨오고있고 란리후의 뒤숭숭한 정국도 정서적으로 암시되고있다. 작품에서는 고국산천과 헤어지는 서정적주인공의 남다른 슬픔이 《삼각산》과 《한강수》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과 결부되어 노래됨으로써 애국주의적인 사상감정을 더욱 응심깊게 보여주고있다. 시조에서는 생동한 언어적필치가 시의 서정을 살리는데 조화를 맞추고있다.

김류(1571-1648)의 시조도 외적의 침입으로 조국의 운명이 위태로워진 어려운 시기에 나라 위해 충성을 다하려는 애국의 기개를 노래하고있다.

김류는 자를 관옥, 호를 북저라고 하였다. 인조대에 재상을 하던 그는 시조 《소상강 긴대 버혀…》에서 나라의 운명을 통락질하는 주화론자들을 일거에 쓸어버리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형상적비유의 수법으로 대나무로 긴 비를 만들어 하늘의 태양을 가리우는 해로운 구름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노래하고있다.

소상강 긴대 버혀 하날비게 비를 매어
폐일부운 다 쓸어 바리고저
시절이 하수상하니 쓸동말동 하여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75페이지)

시조에는 반역자들을 쓸어버릴 애국의 마음은 불같으나 안팎의 원썩들과 주화파의 준동이 갈수록 심해져 국운을 바로잡을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반영되어있다.

병자전쟁의 역사적현실을 반영한 시조로는 장현의 《압록강 해진 후에…》, 홍서봉의 《님 리별하는 날에…》, 리명한의 《울며 잡은 소매 떨치고…》, 조한영의 《옥란꽃이 피니…》, 정온의 《책 덮고 창을 여니…》 등을 들수 있다.

이 작품들은 치욕스러운 《화의》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하여 수난당한 조국의 존엄에 대한 시인들의 절통한 심정을 노래한것들로서 그 밑바탕에는 조국과 겨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놓여있다.

압록강 해진 후 어여쁜 우리 님이
연운만리를 어디라고 가시는고
봄풀이 푸르거든 즉시 돌아오소서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90페이지)

장현이 지은 이 시조는 병자전쟁후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호송되어갈 때의 체험을 노래한것이다.

당시 장현은 통역관으로 이들을 따라갔다.

시조에서는 표면상 적국으로 끌려가는 이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토로되고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왕자까지 원썩들에게 인질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짓밟힌 나라의 존엄에 대한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과 그러한 현실을 빚어낸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이 력력히 흐르고있다.

홍서봉(1572-1645, 자 : 휘세, 호 : 학곡)의 시조 《님 리별하는 날에…》도 역시 시적

계기와 정서에 있어서 장현의 시조와 비슷한 작품이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주로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애달픔과 비애의 정서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시조에서는 떠나가는 사람과 고국에 남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서로 작별하던 압록강나루터의 비극적인 전경이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노래되고있다.

홍서봉은 적국과의 《화의》를 주장한 주화파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청나라침략자들이 불의에 남한산성을 포위공격하자 《왕실보호》를 내세우면서 싸우느라고 무모한 희생을 내지 말고 빨리 대방과 협상하여 《화의》를 하자고 제기하였으며 인조의 칙령을 받고 《화의》차로 여러번 청나라에 갔다왔다. 시조에서는 비록 《화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강행하였지만 그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수치와 슬픔만이 차례졌다는것을 객관적으로 펼쳐보여줌으로써 일정한 정서적공감을 자아낸다.

당시 《4문장》의 한사람으로 꼽히던 월사 리정구의 아들인 리명한(1595-1645)도 병자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애국의 감정정서를 담은 시조를 여러수 남기였다.

시조 《울며 잡은 소매 떨치고...》, 《서산에 일모하니...》, 《꿈에 다니는 길이...》 등은 리명한이 심양옥중에 잡혀있을 때 조국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작품들이다.

울며 잡은 소매 떨치고 가지 마소
초원장제에 해 다 저 저물었다
객창에 잔등을 돋오고 앉어보면 알리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80페이지)

서산에 일모하니 천지에 가이 없다
리화 월백하니 님 생각이 새로왜라
두견아 너는 놀을 그려 밤새도록 우나니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228페이지)

이 시조들에서 《님》-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있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는 누구나 생활에서 체험할수 있는 전형적인 정황속에서 형상적으로 노래되고있다.

때문에 이 시조들은 그후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리별한 《님》을 그리는 녀성의련정가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병자전쟁을 계기로 척화파를 위시한 시인들의 시조작품들에서는 나라가 당한 수치에 대한 울분이 기본정서를 이루고있지만 수난당한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감정정서는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시조에는 나라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애국, 우국의 심정이 반영되고 체험세계가 진실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깊은 정서적여운을 남기였다고 할수 있다.

17세기 시조의 창작경향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저들의 당파적리익을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도 나라의 운명은 안중에 두지 않는 봉건통치배들의 처사에 대한 비판적경향이 보다 강렬해진것이다.

이전시기의 시조에서도 현실비판주제의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나 사회적불합리의 장본

인인 봉건통치배들을 직접 비판한 작품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시조작가들이 대부분 양반관리들이었고 그 창작목적이 대체로 자기들의 유식과 흥을 돋우고 도학적교리를 설교하는데 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었다.

임진조국전쟁에 이어 17세기에 들어와 거듭된 전란을 계기로 봉건통치배들의 무능성과 비겁성, 취약성이 더욱 드러나고 특히 통치층내부에서의 비렬한 당파싸움으로 하여 그 저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시조창작분야에서도 봉건통치배들의 그릇된 처사를 직접 비판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오게 되었다.

특히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란무하던 당파싸움을 신랄하게 비판한 시조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는데 리덕일(1561-1622)의 시조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리덕일은 자를 경이라고 하였고 호를 칠실이라고 하였다. 그는 1597년 왜적이 재차 침입하였을 때 의병을 못고 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하였고 그후 리순신의 휘하에서 싸운 사람이다. 전쟁이 끝난 다음 통제영 우후로 있으면서 나라방위를 위한 정책들을 제기하였고 광해군때 당쟁이 격화되자 시골에 내려가 생활하였다. 이때 그는 권력다툼에만 열을 올리는 반동통치배들의 처사를 비판하고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조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싸흠에 시비만 하고 공도시비 아니는다
어이한 시사 이같이 되였는고
수화도곤 깊고 더운 환이 날로 길어 가노매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430페이지)

시조에는 나라의 정사를 바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파싸움만 일삼는 정계의 현실, 시국에 대한 개탄과 함께 이러한 당쟁이 끊임없이 만연되어가는것을 걱정하는 시인의 심리세계가 짙게 비껴있다고 볼수 있다.

다음의 시조들에서 시인은 당파싸움의 치렬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면서 이 싸움이 나라에는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는것이 없는 공허하면서도 피비린 싸움이라고 준절히 단죄하고있다.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외다 하네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흠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는 님이신가 하노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431페이지)

힘써 하는 싸흠 나라 위한 싸흠인가
옷밥에 묻혀있어 할일 없어 싸호눗다
아마도 끊지지 아니하니 다시 어이 하리오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431페이지)

첫번째 시조에서 《님》은 임금을 녀두에 둔것이다. 당파싸움으로 임금이 고립되어 아무

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한것은 임금에 대한 걱정과 함께 당파싸움이 왕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준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폭군으로 알려진 광해군도 당파싸움에 대해 개탄한 사실을 놓고볼 때도 이 시기 당쟁이 얼마나 치열하였는가를 가늠하게 한다.

두번째 시조에서는 싸움이 나라 위한 싸움인가라는 수사학적물음을 제기하고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만연되는 당쟁이야말로 《할일 없어》하는 추악한짓이라는데 대하여 개탄하고 있다.

리덕일은 나라의 부강태평이 당파싸움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이것은 다음의 시조에서 잘 알수 있다.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흠 말리소서
지공무사히 말리소서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웃 말리시면 탕탕평평하리이다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431페이지)

사사로운 개인감정과 복수심이 없이 싸움을 말린다면 나라가 《탕탕평평》하게 된다는 리덕일의 주장에서 나라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는 그의 우국지심을 엿볼수 있고 나아가서 당쟁으로 나라의 환란을 조성하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만과 저주의 감정을 읽게 된다.

17세기 시조의 창작경향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농촌풍경과 자연을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보임으로써 생활반영과 시적묘사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이미 16세기에 하나의 조류로 나타났던 《은일시가》계렬에 속하는 작품들이 이 시기에 도 많이 창작되었는데 주목되는것은 강호한정을 노래한 이러한 시가들이 음풍영월적이고 도학적인 경향에서 많이 벗어나 점차 농촌세태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것이다. 특히 이채를 띠는것은 평범한 농촌생활과 자연환경을 생동한 필치로 시화함으로써 묘사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이다.

17세기에 《은일시가》창작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경향은 김광옥, 리명한, 남구만 등의 작품들에서 대표적으로 볼수 있으며 윤선도와 조존성, 신희의 창작에서 더욱 두드러지고있다.

김광옥(1580-1656)은 자를 회이, 호를 죽소라고 하였는데 1606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검열로 벼슬길에 나섰다가 광해군의 폭정을 비난하였다는 리유로 파직되었다. 그후 그는 약 10년동안 경기도 고양에 자리잡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시가창작에 전념하였다. 《인조반정》후에 다시 복직되어 형조판서, 한성부윤, 경기감사 등을 거쳐 의정부 참찬까지 지냈다.

김광옥은 고양군의 행주강가에서 은거생활을 하던 시기에 농촌생활의 이모저모를 생동한 필치로 그려낸 시조 14수(《물리유곡》)를 창작하였다.

이가운데는 《허틀고 시곤 문서...》, 《강산 한아한 풍경...》, 《추강 밝은 달에...》, 《세버들 가지 꺾어...》 등과 같이 시끄러운 벼슬살이를 집어던지고 전원애 들어와 강호한정을 즐기는 량반선비의 생활감정을 노래한 작품들과 《언충신 해독경하고...》와 같이 자기의 수양과 관련한 교훈적인 작품들도 들어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정서와 사상적지향에 있어서 이전시기에 량반선비들이 창작하였

던 《은일시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시조들은 시적형상이 매우 생동하고 진실한 것이 특징적이다.

허틀고 시끈 문서 다 주어 후리치고
필마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모리 매인 새 놓히다 이대도록 시원하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67페이지)

이 시조에서는 벼슬살이의 시끄러운 잡무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에 돌아온것을 끈에 매여있던 새가 풀려나온것보다 더 시원한것으로 노래하고있다. 여기에는 광해군폭정하의 어지러운 정치현실에 대한 은근한 반감과 자기를 파직시킨 조정의 분격도 어려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필마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을 매우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시끄러운 벼슬살이에서 벗어난 자기의 상쾌한 기분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준것으로서 시인의 창작적개성을 엿볼수 있게 한다.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꺾여들고
주가를 찾으리라 단교로 건너가니
그곳에 행화 저날리니 갈길 몰라하노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68페이지)

이 시조 역시 전원취미를 노래한것이면서도 시적묘사가 매우 생동하고 사실주의적인 것이 특징이다.

김광옥의 시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최행수 쑥다림하세...》, 《질가마 조히 씻고...》 등과 같이 소박한 농민생활의 이모저모를 풍속도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한 작품들이다.

최행수 쑥다림하세 조동갑 꽃다림하세
닭찜 개찜 오려점심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령성 굴면 벼슬 부릴줄이 이시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68페이지)

이 시조에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전해오던 쑥달임 꽃달임(초봄에 진달래가 피고 햇쑥이 돌아날 때 그것을 뜯어 전을 부치거나 떡에 섞어 음식을 만들고 여럿이 모여 먹는 놀이)과 같은 민중생활풍습의 일면을 향토적색채가 짙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는 당시 농촌의 구체적인 생활세태가 아무런 꾸밈도 없이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노래되고있다.

이 시기 《은일시가》의 창작에서 나타난 이러한 시적경향은 리명환의 《새별 지자 종다리 떴다...》, 남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 한호의 《짚방석 내지 말아...》, 조준성의 《아희야 구렁망태 메여라...》 등에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새별 지자 종다리 뗏다 호미 메고 사립 나니
긴 수풀 찬이슬에 베잡방이 다 젖거다
아희야 시절이 좋을세면 옷이 젖다 판제하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79페이지)

작품은 리명한(1595-1645)이 말년에 벼슬을 내놓고 농촌에 돌아가 전원생활을 할 때에 창작한것으로 보인다.

시조에서는 《새별 지자 종다리》떠서 자유로이 날아에는 모양과 《긴 수풀 찬이슬에 베잡방이 다》적시며 활기있게 들로 나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정서적으로 잘 결부시켜 노래함으로써 농촌정경을 실지 눈으로 보는것처럼 선명하게 그려내고있다.

시조는 이처럼 시적형상의 진실성과 생활공정의 정서로 하여 이 시기 진보적시조문학 작품들가운데서 우수한 성과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남구만(1629-1711)의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도 역시 그 시적경향과 달성한 예술적성파에 있어서 리명한의 시조와 맞먹는 우수한 작품이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희들은 양기 아니 일어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발은 언제 갈려 하나니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83페이지)

남구만은 자를 운로, 호를 약천이라 하였고 벼슬은 령의정까지 지낸바 있다. 한때 남해에서 귀양살이도 하고 말년에 벼슬을 내놓고 결성에서 전원생활을 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가 전원생활을 할 때 지은것으로 보인다. 작품은 동창이 휘우들이 밝아오는 이른아침부터 발갈이를 서두르는 농촌의 생활정경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시조는 리명한의 시조와 마찬가지로 그 색조가 밝고 설레는 농촌정경을 정서적으로 잘 그리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조존성의 시조 《아희야 구렁망태 메여라...》도 농촌생활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아희야 구렁망태 메여라 서산에 날 늦었다
밤지낸 고사리 하마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푸새 아니면 조석 어이 지내리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76페이지)

이 시조는 밭일을 일찌감치 끝내고 산나물을 캐러 가려고 서두르는 농민들의 세태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것을 바라보며 구렁망태를 비롯하여 산나물 채취준비를 갖추느라고 서두르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실감있게 노래되고있다.

여기에는 산나물로 끼니를 이어가는 당시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처지도 드러나있어 다른 작품들보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이 더욱 강하다.

상촌 신흠(1566-1628)은 17세기 시조작가들중에서 윤선도와 박인로 다음으로 시조를 많이 남긴 시인이라고 볼수 있다. 그는 유명한 국문시인인 송강 정철의 종사관으로 있을 때 그의 높은 식견과 국문시가창작에서 발휘한 놀랄만 한 솜씨에 대하여 늘 감탄하곤 하였다고 한다. 송강의 영향을 받아 그는 한자시를 비롯한 풍부한 문학유산을 남기였다.

그는 시조창작에도 일정한 관심을 가졌던것으로 보인다.

《해동가요》에는 신흠의 시조 20수가 전해지는데 이것은 그의 문학창작 전과정을 놓고 볼 때 그리 많은 유산은 아니지만 다른 시인들에 비하여 시조창작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신흠의 시조는 거의나 광해군시기 벼슬에서 일시 은퇴하여 전원생활을 하던 시기에 창작된것으로 짐작되며 작품들에 반영된 기본생활정서는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의 안착을 찾으려는 감정세계와 부패한 양반관료들에 대한 비판의 감정이라고 볼수 있다.

하기에 그의 시조들에는 전원생활을 계속하는 과정에 비로소 일정한 생활의 안착을 찾는데 대한 만족감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적묘사와 결부되어 매우 진실하게 안겨오는 작품들도 있는것이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에라
시비를 여지 말아 날 찾음이 뉘 있으리
밤중만 일편명월이 괴 벗인가 하노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71페이지)

이 작품은 확실히 앞에서 취급한 작품들과 정서적색채가 다르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착된 서정적주인공의 태연자약하고 만족한 전원생활흥취가 느껴진다.

신흠의 시조가운데는 재치있는 비유적수법으로 어지러운 당대 현실을 직접 비난한 작품들도 일부 있다.

내가에 해오라비 무삼일 서있는다
무심한 저 고기를 여어 무삼 하려는다
아마도 한물에 있거니 잊었은들 어떠하리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70페이지)

어일샤 저 봉조야 웃노라 저 봉조야
구만리 장천에 무사일 올라간다
구렁에 범새 참새는 못내 즐겨하더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71페이지)

이 시조들에서는 한결같이 점잔을 부리며 료리도덕을 곧잘 설교하면서도 부귀공명을 탐

내여 당쟁에 휩쓸려 서로 물고뜯으며 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히는 량반관리들의 추악한 행위를 비판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시인의 지향을 생동한 비유의 수법으로 깊이있게 드러내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사상을 생동한 비유적형상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의 서정과 내용의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는 이러한 특징은 신희의 시조작품전반에 관통되어있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신희에게는 이밖에도 그가 전원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정계에 돌아와 벼슬살이를 하던 말년의 작품으로 짐작되는 《나를 묻지 마라...》, 《은항에 불이 밝고...》, 《준중에 술이 있고...》와 같은 시조들도 있는데 이 작품들은 그 사상적지향에서나 시적형상에서 별로 볼만 한 것이 없다.

신희의 시조는 고유어를 잘 다듬어쓰고있으며 잔잔한 서정에 어울리는 차분한 시의 톨조를 창조하고있는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제재나 사상적지향에서 선행한 량반시인들의 문학세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그의 시조는 시의 형상창조와 언어구사 등에서 일련의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17세기 시조문학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 일부 진보적량반문인들에 의하여 농촌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옴으로써 시조창작에서는 사실주의적성과가 더욱 확대될수 있었다.

17세기 시조의 창작경향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엽시조, 사설시조형식이 보편화되고 반유교적지향이 뚜렷한 련정주제의 작품들과 상품거래정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된것이다.

17세기에 시조창작에서는 엽시조나 사설시조와 같은 시조양식을 활용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주제의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세태적인것의 구체적인 묘사를 지향하던 자기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시조양식도 새로운것을 탐구하여 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 출현한것이 바로 엽시조와 사설시조형식이다.

엽시조와 사설시조는 한마디로 말하여 짧고 격식화된 평시조형식에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자유롭게 반영할수 없었던 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 생겨난 시조의 독특한 형식들이다.

16세기 권호문의 련시조 《한거십팔곡》에서 《행장유도하니...》로 시작된 작품과 정철의 시조 《시미산 세네바희...》 그리고 《장진주사》는 평시조의 기준구수를 2구 또는 그이상으로 초과하고있는 작품들로서 처음으로 평시조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조양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권호문이나 정철의 시가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은 당시까지는 보편적으로 널리 리용되지 못하였고 하나의 돌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류, 가객, 광대와 같은 서민들에 의하여 평시조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난 엽시조와 사설시조가 보편적으로 리용되었다고 보아진다.

김천택에 의하여 1727년에 간행된 시조집 《청구영언》에는 998편의 시조작품이 올라있는데 그가운데는 약 350여편의 엽시조 및 사설시조작품들이 들어있다. 김천택이 《청구영언》을 편찬할 때 곡조별, 작가별 수록원칙과 함께 년대순의 원칙도 고려했다는것을 넘두에

둘 때 이 엽시조, 사설시조작품들은 책의 뒤부분에 올라있는것만큼 작품집이 편찬되던 당시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창작된것임은 틀림이 없겠으나 시조작품 총수의 근 40%에 달하는 350여편이나 되는 그 많은 작품이 다 18세기초의 20년동안에 창작된것일수는 없다.

현재 시조집들에서 전하는 엽시조와 사설시조작품들의 시대적배경을 따져보면 이 형식의 작품들이 17세기 중엽이전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택들에 나무를 사오...》를 비롯하여 물물교환의 방법에 의한 장사거래정형을 노래한 사설시조작품들은 1678년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전의 시대적배경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16세기에 활동한 리매창의 평시조 《시비에 개 짓거늘...》을 모방(혹은 개작)한 작가불명의 엽시조 《시비에 개 짓거늘...》은 작가가 알려져있지 않기때문에 정확히 언제 창작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것이 리매창의 작품을 모방(혹은 개작)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리매창이 활동한 시기로부터 췌 후에 창작된것은 아니며 따라서 적어도 17세기 전반기에는 나왔으리라고 인정된다. 더우기 1668년 《륙가잡영》이 편찬되었다는것은 최기남을 비롯한 서민들의 창작이 17세기 전반기와 중엽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이처럼 16세기에 처음으로 출현한 엽시조와 사설시조는 17세기 전반기에 와서 보편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엽시조와 사설시조는 시조창작의 발전과정에 합법칙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양식으로서 시조의 본래 양식인 평시조에 비하여 그 용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시적구조와 음수률, 시어 등에서 격식과 틀이 많이 없어진 특성을 보이고있다.

엽시조와 사설시조는 시어를 구두어화하고 운률의 격식을 완화함으로써 규방의 부녀자들까지도 포함한 광범한 대중에게 창작의 가능성을 지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고 할수 있다.

현재 《청구영언》에는 작가가 밝혀져있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있는데 이것들은 그 시적정서로 보아 대부분이 서민가객들에 의하여 창작된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작품의 시대적배경을 놓고볼 때 적지 않은 작품들이 17세기의 생활을 반영한 것들이다.

《청구영언》에 들어있는 시조 《택들에 나무를 사오...》, 《택들에 자리등매를 사오...》 등과 같은 작품들은 쌀이나 무명을 현물화폐로 리용하여 상품매매를 진행하던 17세기 중엽 이전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한때 개성류수를 지낸적이 있는 김육(1580—1658)이 계미(1643)년부터 토지와 가옥과 노비로부터 땀나무와 채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돈으로 사고 있다고 한데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사실상 17세기 중엽부터는 큰 도시들에서 일반소비품들이 거의나 금속화폐에 의하여 매매되었다.

이것은 우의 작품들이 17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창작되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17세기의 경제적변동에 따라 도시서민들이 자기들의 자유분방한 생활과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시조의 생활반영령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주제가 개척되게 되었다.

17세기 시조창작에서 새롭게 개척된 주제의 하나는 상품매매나 고리대금의 장성정형 등과 같은 도시주민들의 경제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다.

댁들에 나무를 사오
저 장사야 네 나무값 얼마니 사자
싸리나무 한동에 한말이오
검수나무 한동에 닷되요
합하야 마닷되오니 사때여 보오 불 잘 붙습네
진실로 한번 곧 사때면 매양 사때이자 하오리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210~211페이지)

이 시조는 나무장사군이 나무를 사려는 사람과 값을 흥정하는 대화장면을 그대로 시화한것이다,

17세기 상품매매흥정을 노래한 이런 류의 작품들은 이밖에도 《댁들에 자리등매를 사오...》, 《댁들에 연지분들 사오...》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것이 창작되었다.

《청구영언》에는 금속화폐인 상평통보가 유통되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뻗뻗 상 평할 평 통할 통 보뵈 보자
구멍은 네모지고 사면이 둥그래서 뻗대글
구으려 간곳마다 반기는고나
어떻다 조고만 금조각을 두 창이 다토거니
나는 아니 좋왜라
(《시조집》 문예출판사 1985, 216페이지)

이 작품은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점차 변화시키고 그에 미쳐 따라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반영된것으로 보아 17세기 말엽에 창작된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시기 주로 서민시인들에 의하여 도시시정인들의 경제생활세태를 반영한 시조작품들이 나옴으로써 시조창작의 주제는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한편 시조창작에서 주목되는 주제의 다른 하나는 시정인들의 련정세계를 정면에서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시조문학사상에서 련정주제의 작품들은 이미 16세기에 기생출신의 녀류시인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창작된바 있다.

이 시조들은 남녀간의 련정세계를 솔직하면서도 섬세한 형상수법으로 표현한것으로 하여 시조창작에서 새로운 경험을 마련하였을뿐아니라 17세기 이후의 시조문학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16세기에 나온 련정주제의 시조들은 그것을 지은 작가들의 대부분이 기녀들인 까닭으로 하여 많은 경우에 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한탄이나 님에 대한 그리움이 기본정서를 이루고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그 정서의 양상이 매우 애절하고 침울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와 창작된 련정주제의 작품들은 남녀간의 련정세계를 그 리면에 이르기까지 대담하고 솔직하게 그리면서도 시적정서와 양상이 밝은것이 특징적이다.

시비에 개 좃거늘 님이신가 반기너겨
 도착의상하고 경측망견하니
 광풍이 진진하여 권렴하는 소래로다
 함소코 출문간하니 참귀참천하여라

문밖에서 개가 짖기에 님이 온줄 알고 너무도 반가워 덤벼치던 나머지 옷을 거꾸로 입은채로 밖으로 달려나가는 녀주인공, 그러나 님은 아니오고 바람에 문발이 날리는 소리를 듣고 개가 짖었음을 알게 된 그는 창졸간에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도 우스워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시조는 인간생활에서 흔히 있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담고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런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을 꿰이는 한 녀인의 심리세계를 매우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이 시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타까움이나 한탄의 서정으로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매우 낙천적이며 해학적인 양상의 서정으로 일관되어있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시기의 런던주제시조작품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정서이며 양상이다.

이밖에도 시조집들에는 《꿈아 꿈아 어리척척한 꿈아...》, 《우리 둘이 후생하여...》 등을 비롯하여 도시 시정인들의 런던세계를 해학적으로 노래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전해지고있다. 이것들 역시 작가가 알려져있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창작년대는 알수 없으나 그 정서의 양상과 형식상특성으로 보아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17세기부터 시조문학분야에서는 주로 서민출신시인들에 의하여 도시 시정인들의 런던세대생활을 그 리면에 이르기까지 대담하게 로골적으로 노래한 해학적인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였다. 이것은 우에서 이미 언급한 도시주민들의 경제생활세대를 반영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새로 대두하던 도시서민계층의 향락적인 기분과 반유교적생활태도를 반영한것으로서 전 시기의 창작에서는 볼수 없었던 현상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도시 시정인들의 런던세대를 노래한 시조들은 전 시기에 창작된 일반 런던주제시조들과 구별되며 따라서 그것은 시조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주제분야의 개척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실마리어 시조창작, 시정인